

폐부종으로 오인된 악성 흑색종의 폐전이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1</sup>, 병리학교실<sup>2</sup>

\*박선철<sup>1</sup> · 박병훈<sup>1</sup> · 신상윤<sup>1</sup> · 전한호<sup>1</sup> · 정경수<sup>1</sup> · 최준정<sup>2</sup> · 김영삼<sup>1</sup> · 김세규<sup>1</sup> · 장준<sup>1</sup> · 김성규<sup>1</sup> · 박무석<sup>1</sup>

악성 흑색종은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로부터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피부, 림프절, 폐, 간, 뇌, 뼈 등으로 전이된다. 악성 흑색종 환자의 약 10%에서 폐전이가 발견되며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주로 고립성 혹은 다발성 결절로 나타난다. 저자들은 폐부종으로 오인된 악성 흑색종의 폐전이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40세 남자 환자가 내원 1개월 전부터 마른 기침이 있어 내원하였다. 내원 2년 전에 피부의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고 2차례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다발성 림프절 전이로 가지세포(dendritic cell)를 이용한 면역치료를 받고 있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단순흉부촬영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양측 폐실질에 미만성의 간유리 음영 및 양측 흉수가 관찰되었다. 경기관지 폐생검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핵막의 변연부에 응괴된 염색질과 불규칙한 모양의 핵을 가진 비정형 멜라닌 세포가 관찰되어 악성 흑색종의 폐전이로 확진하였다. 이후 총 4차례 가지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를 하였고 추적 관찰 도중 악성 흑색종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다낭성 폐질환이 동반된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 1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sup>1</sup>, 임상병리과<sup>2</sup>

\*전성란<sup>1</sup> · 오미혜<sup>2</sup> · 최재성<sup>1</sup> · 서기현<sup>1</sup> · 김용훈<sup>1</sup> · 나주옥<sup>1</sup>

**서론 :** 쇼그렌 증후군은 림프구 침윤과 관련된 만성적인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폐 침범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조직학적으로 모세기관지 주위에 림프구 침윤을 동반한 다낭성 폐질환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다낭성 폐질환이 동반된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45세 여자 환자가 내원 2년 전 전신 쇠약 및 피로감으로 본원에 입원하였다. 혈청 검사에서 anti-Ro/La antibody 양성, 흉부 방사선 및 흉부 컴퓨터 촬영에서 양 폐야의 다낭성 병변이 관찰되어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 생검 시행 결과 모세기관지 주위에 림프구 침윤 및 다양한 크기의 폐낭종들이 관찰되어 쇼그렌 증후군의 폐 침범 의심 하에 추가 검사 시행하려 하였으나 추적 관찰 되지 않았다. 상기 환자는 내원 1개월 전부터 마른기침, 호흡곤란, 구강건조가 있어,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 소견에서 다발성의 폐낭종 소견과 우하엽에 폐 침윤 보였고 흉부 컴퓨터 촬영에서 양 폐야에 다발성의 다양한 크기의 낭성 병변과 함께 우하엽에 폐렴 소견이 보였다. 폐기능 검사에서 폐확산능의 감소와 제한성 폐기능 장애, Schirmer 검사에서 양안 4mm/5min로 눈물 분비능이 감소한 소견 보여 쇼그렌 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였으며, 2년 전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 생검에서 모세기관지 주위에 림프구 침윤 및 다발성 낭종을 확인하였으므로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에 동반된 다낭성 폐질환을 진단하였다. 이후 환자는 스테로이드 투여로 호전되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 본 저자들은 일차성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 생검으로 진단된 모세기관지 주위에 림프구 침윤을 동반한 다낭성 폐 질환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